2018 년 3 월 24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0) 사사기: 유업의 실패와 회복들" (삿 2:11-18)

<도입>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2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삿 2:10). 약 300 년 동안 백성들이 범죄(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빼앗긴 유업을 회복시키십니다.

등장하는 13 명의 사사들:
옷니엘 – 에훗 – 삼갈 – 드보라 – 기드온 – 아비멜렉 – 돌라 – 야일 – 입다 – 입산 – 엘론 – 압돈 – 삼손

[1] 이야기의 반복적인 패턴

사사기 이야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본문 참고).

11-12 절. 우상숭배 - 범죄함 → 진노하심
14 절. 약탈자에게 넘기심 → 심판 → 회개/요청
16 절. 사사를 일으키심(구원과 회복) → 평화시대
17 절. 그러나 순종의 길에서 떠남.

학자들이 범죄-심판-회개-구원의 패턴을 담은 사사기 이야기들을 '작은 구원 사건'(mini salvations)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원'을 유업 관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1 세대가 받은 유업의 땅을 잘 지키려면 율법/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하나님 중심). 그러나 2 세대는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향해 주님을 떠나므로 약탈자들에게 유업의 땅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 즉,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잃는 것입니다.

또 한 포인트는, 유업을 잃은 백성은 마치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받은 생명으로부터 자유와 진리를 빼앗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받은 유업을 지키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사기 결론으로 **21:25**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 즉, 사사시대는 유업을 지키는 삶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2] 유업을 향한 회복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유업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삶에 속한 것들, 교회,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이 그러합니다. 어느 지파도 똑 같은 땅을 받지 아니하였듯이 누구도 동일한 삶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업을 발전시키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의식)하며 그분께 의존하고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풍성해집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땅을 경작하고, 이름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자기 뜻대로 열매를 먹고 에덴(유업)을 잃듯이 사사시대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행하여 땅과 삶(유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빈번할까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에 대해 피상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장애물을 보겠습니다.

[3] 유업의 장애물

첫번째, 우상숭배

이스라엘은 영적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땅을 경작하려고 할 때, 농경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구체적/실질적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하나님 소유라고 인정했겠지만 땅에서의 생산은 바알 소관이라 믿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습다. 이것은 유혹이었고, 더 많은 산출을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유혹과 욕심에 지배당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나는 무엇에 유혹을 느끼고 욕심을 갖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에 유혹을 느끼고 욕심을 갖습니다.

인간은 필요에 대한 정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이 욕구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유혹과 욕심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아담/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혹과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이 에덴(유업)을 잃게 만든 것이었죠. 그러면 삶으로부터 자유, 평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의 참 질을 잃습니다(창 3 장).

두 번째,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삶을 반듯하고, 옳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완벽주의의 문제는 내용과 형식이 무난해도 10 중 1 이 거스르면 10 전체를 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업으로 삼으셨는데(신 9:26, 29) 만일 완벽한 것을 유업으로 삼기로 하셨다면 누구도 그분의 유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유업 또한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이 자기들 유업을 더 좋게 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보다 내 인생이 더 깨끗하고 빈틈없이 좋게 만드는 어떤 것을 따른다면 나는 바알과 같은 허상을 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한다면 보내주시는 사사,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나의 유업을 회복/재정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맺음>

우상숭배와 완벽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구주를 만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삶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묘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면, 결국 삶의 참 가치(자유, 평화...) 빼앗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주를 보내셔서 유업을 바르게 회복시키십니다. 이 구주로 인해 주신 참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 유혹, 욕심, 완벽주의를 이김으로써 유업의 삶을 힘있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유업의 장애물(위의 내용)을 참조할 때 지금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오늘 말씀에 비추어 유업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유업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결단을 말씀해 보세요. 구주를 만나는 것이 유업 회복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